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오경

창세기 [50]-----	4
탈출기 [40]-----	5
레위기 [27]-----	6
민수기 [36]-----	7
신명기 [34]-----	8

역사서

여호수아기 [24]-----	9
판관기 [21]-----	10
룻기 [4]-----	11
사무엘기 상권 [31]----	12
사무엘기 하권 [24]----	13
열왕기 상권 [22]-----	14
열왕기 하권 [25]-----	15
역대기 상권 [29]-----	16
역대기 하권 [36]-----	17
에즈라기 [10]-----	18
느헤미야기 [13]-----	19
토빗기 [14]-----	20
유딧기 [16]-----	21
에스테르기 [10]-----	22
마카베오기 상권 [16]--	23
마카베오기 하권 [15]--	24

사서와 지혜서

욥기 [42]-----	25
시편 [150]-----	26
잠언 [31]-----	27
코헬렛 [12]-----	28
아가 [8]-----	29
지혜서 [19]-----	30
집회서 [51]-----	31

예언서

이사야서 [66]-----	32
예레미야서 [52]-----	33
애가 [5]-----	34
바룩서 [6]-----	35
에제키엘서 [48]-----	36
다니엘서 [14]-----	37
호세아서 [14]-----	38
요엘서 [4]-----	39
아모스서 [9]-----	40
오바드야서 [1]-----	41
요나서 [4]-----	42
미카서 [7]-----	43
나훔서 [3]-----	44
하바쿱서 [3]-----	45
스바니야서 [3]-----	46
하카이서 [2]-----	47
즈카르야서 [14]-----	48
말라키서 [3]-----	49

창 세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50~517 장수: 50

해당 기간: BC 4004~BC 1805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2000년 이상되는 긴 기간을 다룸

주요 사항

창세기는 오경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다. 이는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한다는 것은 나머지 구약 성경을 혹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적 관점에서 읽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기억할 구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 1,1)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 1, 27)“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창세 3, 17)

창세기의 내용 요약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후반부는 어느 한 가족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탈출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1)전반부(1~11장, 원역사) : 하느님께서 세상을 인류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첫 인류는 따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다. 그들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큰 아들 카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지른다. 그 후 세상에 죄들이 범람하게 되자 하느님은 세상을 벌하기로 작정하시는데 당신의 마음에 들었던 노아만은 살려 두신다. 새 세상이 형

성되고, 이를 기념하며 하느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신다. 하지만 인간들의 죄는 다시 생겨나고, 결국 하느님께서서는 서로의 말을 혼란시키시어 바벨탑을 짓던 인간들을 흩어 놓으신다.

2)후반부(12~50장, 성조사) :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계약으로 체결하신다. 이후 이사악이 태어나고 이사악에게서 야곱이 태어나면서 역사가 전개된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까지 내려가 살게 되고, 마침내 거기에서 재상으로 임명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거주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된다.

탈출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50~517 장수: 40

해당 기간: BC 1525 ~BC 1400

모세의 탄생부터 40 년에 걸친 이집트에서의 탈출 기록을 다룸

주요 사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형성

- 창세기가 ‘세상과 한 가족의 탄생’을 소개한다면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생’을 소개한다,

계약 체결과 전례적 율법 규정

- 하느님과 ‘계약’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여러 법조문들을 예시한다.

하느님에 대한 앎의 여정

-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조상들의 하느님’만으로 알고 있던 하느님을 ‘자신들의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체험을 한다.

기억할 구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탈출 3, 14)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탈출 15, 6)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탈출 20, 3)

탈출기의 내용 요약:

1)전반부(1~18장):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파라오의 탄압을 받게되고,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세는 생명을 유지한다. 파라오의 궁에서 자란 모세는 자기 동포를 억압하던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주하는데,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다. 소명에 따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불러 내오기 위해 파라오와의 대결이 시작된다. 완고한 파라오는 모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 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그들을 풀어 준다.

갈대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인들은 긴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하느님께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부양하신다.

2)후반부(19~40장):

시나이로 이르자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데, 계약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십계명과 계약 법전이 주어진다. 드디어 계약을 맺고, 계약의 가시적 증거로 성막을 제조하고자 한다. 제사 규정과 안식일 등도 제정된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계약이 파기되나 다시 하느님은 증언판을 주시고, 마침내 성막이 건설된다.

레 위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50~517 장수: 27

BC 1445~AD 70의 기간에 적용됨.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 AD 70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용됨.

히브리인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에 대하여 기록함.

주요 사항

이집트 탈출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었고, 이에 맞추어 탈출기 후반부는 성막을 건립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바로 그 성막에서 드릴 각종 예배를 소개하는 책이 레위기이다. 특별히 레위기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민의 장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함으로써 성막을 주제로 한 탈출기와 연속성을 명시한다.

기억할 구절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레위, 17, 11)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 19, 18)

레위기의 내용 요약:

레위기의 전반부는 여러 전승들의 모음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주로 성결 법전을 제시한다.

1)전반부(1~16장)

레위기는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번제, 곡식제, 친교제, 속죄제, 보상제이다. 이어서 제사를 드린 사제들에게 돌아갈 몫이 언급된다. 이후 사제들이 어떻게 축성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제시된다. 사제계 법전 부분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함 짐승, 산모

의 부정, 악성 피부병,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소개되고, 죄를 벗는 ‘속죄일’ 규정이 언급된다.

2)후반부(17~27장)

후반부는 대부분 성결 법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했을 때에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어겼을 경우 벌을 받게 됨이 명시되어 있다. 부록에는 허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가 예시된다.

민수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50~517 장수: 36

해당 기간: BC 1450 ~ BC 1400

민수기에는 히브리인들이 40년 간 광야에서 유랑한 이야기가 포함된다.

주요 사항

민수기는 이집트 탈출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은 법조문들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법조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 조항들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는데, 특히 민수기에서는 일반적 법령들을 나열하기보다 주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소개하고 있다.

기억할 구절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주검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민수 14, 32-33)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민수 23, 19)

민수기의 내용 요약:

지리적 이동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구분한다.

1) 시나이에서(1, 1~10, 10)

시나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인구 조사와 진영의 조직, 다양한 법령들과 제의적 규정들이 소개된다.

2) 시나이에서 모압으로(10, 11~21, 35)

이어 시나이를 떠나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긴 광야 여정이 소개된다. 백성은 호밥의 인도로 광야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아론-미르암의 반역이 일어난

다. 이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꾼이 파견되고, 모세와 아론에 도전한 코라와 다탄,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난다. 여정 중 아론과 미르암이 죽지만, 약속의 땅을 위한 여정이 지속된다.

3) 모압에서(22~36장)

모압 임금 발락과 발라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알신을 섬기는 행위 때문에 이집트 탈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세대가 등장한다. 그리고 정복한 땅의 분배와 몇 가지 규정이 설명된다.

신명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50~517 장수: 34

BC 1450에서 BC 1400까지의 기간의 사실과 모세의 율법을 다루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 성전이 파괴된
AD 70까지의 기간까지 적용됨.

신명기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탈출기 20장에 처음 나오는 10계명이 다시 나온다.

주요 사항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압이라는 지리적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압에 도착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민수기의 내용은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연설(유언)을 내용으로 삼는 신명기와 지리적으로 연결된다.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유언처럼 전할 한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 모세는 이집트 탈출 이후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한 세대의 삶을 총정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한다.

기억할 구절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 18, 10-11)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신명 34, 10)

신명기의 내용 요약:

신명기는 세 개의 연설과 모세의 최후를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분된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한다. 첫 번째 연설은 광야의 대장정과 여러 법규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 번째 연설에서 더 자세히 강조되는데, 십계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호렙에서의 체험, 이집트 탈출, 금송아지 사건 등이 회고된다. 12~26장에서는 신명기 법전이 제시되며, 이어 계약 갱신과 이에 따른 저주와 축복이 선언된다. 29~30장은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며 지나간 역사를 교훈 삼으라는 당부로 되어 있다. 31~34장에서는 모세의 최후와 여호수아의 임명, 모세의 장례 등이 소개된다.

여호수아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406~517 장수: 24

해당 기간: BC 1400 ~BC 1375

모세가 죽고 난 후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가 하는 이스라엘 초기 가나안 정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

여호수아기는 모세를 통해 체결된 하느님과 계약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 계약의 증표로 땅을 약속하셨다. 하느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켜 주셨는가를 알려 주는 책이 여호수아기이다. 특별히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성실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순명을 강조한다.

기억할 구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 1, 9)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합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합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에 합성을 질러라.’” (여호 6, 10)

여호수아기의 내용 요약: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의 내용은 기원전 1250~1025년 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진 세력으로 부상하던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여호수아기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 구릉 지대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탈출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약속된 땅을 얻기 위한 모세의 준비 과정을 말한다면, 여호수아기에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여정 중에 연합 부족민들을 어떻게 단합시키고 다스렸는지를 소개한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전반부 : 가나안 침입과 정복(1~12장)

후반부 : 가나안 분할(13~22장)

부록 : 여호수아의 송별사(23~24장)

판 관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050~517 장수: 21

해당 기간: BC 1350 ~BC 1050

유명한 여성 판관 드보라와 여성 암살자 야엘의 이야기가 포함됨.

주요 사항

어원상으로 보면 판관은 사법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이들이지만, 판관기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는 드보라만 해당될 뿐이고, 그 외 인물들은 훨씬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었다. 평상시에는 국내외 정치, 사회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전시에는 최고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판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12명이다.

기억할 구절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 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고.’”(판관 16, 17)

판관기의 내용 요약:

판관기는 가나안 정착에서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2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난 하느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느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왕정을 도입하게 된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여호수아기와 판관기는 가나안 정착이라는 동일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두 책이 설명하는 정착의 모습은 서로 판이하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12지파가 강력히 결속하고 치밀한 군사 행동으로 이룩한 일종의 군사 정복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판관기는 각 지파들이 점차적으로 이주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일종의 침투적 상황을 보여 준다.

룻 기

필자: 사무엘? 집필 시기: BC 1050~1000 장수: 4

해당 기간: BC 1150 ~ BC 1100

남편과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부하고 돌본 룻의 이야기. 다윗 왕은 재혼 후 낳은 그녀의 후손이다.

룻기의 배경은 대부분 장차 예수님의 탄생지가 될 베들레헴이다.

주요 사항

룻기의 문학 유형은 민간 설화 혹은 단편 소설이다. 룻기는 다윗의 조상 가운데 이방계(모압) 여인이 존재했다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섬세하게 신학화한 작품이다. 설사 이방 여인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느 유대인보다 훌륭하고 성실하게 하느님을 섬기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통 다윗 왕조의 위상에 가해질 수 있는 타격과 불편함을 미리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할 구절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기 1, 17)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 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룻기 4, 17)

룻기의 내용 요약:

룻기는 다윗의 증조모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저자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룻기의 첫 부분은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제1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제2장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찾아간 보아즈의 밭에서 룻은 양식 이상의 소중한 의미와 희망을 만나게 된다. 제

3장에서는 보아즈는 한밤중, 룻을 자기 밭치계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룻은 보아즈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간청하게 된다. 보아즈는 룻에게 친족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이 일종의 장애로 등장한다. 제4장은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법적으로 룻을 구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자 보아즈는 룻과 결혼한다. 이 결혼을 통해 룻과 보아즈는 다윗의 증조모, 증조부가 된다.

사무엘기 상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930~517 장수: 31

해당 기간: BC 1150~BC 1000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요 사항

-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를 사제에게 맡겨 주님을 섬기게 하였다.
- 주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다.
- 사무엘이 다윗을 미래의 임금으로 뽑다.
-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 사울이 영매를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려 물어보다.

기억할 구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습니다.’” (1사무 15, 22)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사무 16, 7)

사무엘기 상권의 내용 요약:

- 사무엘기 상권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예언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과의 갈등이 나온다.
-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은 지파들끼리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무엘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들을 하나의 정부 형태로 통일된 국가로 바꾸셨다. 사무엘기 상권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왕이 있다며 원로들이 모여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청하였다.
-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 이 책은 대부분 예언자 사무엘의 통치, 사울 왕의 업적과 악행,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맺는다.

사무엘기 하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930~517 장수: 24

해당 기간: BC 1000~BC 975

다윗 왕의 통치

주요 사항

- 다윗이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때에 그가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비웃는다. (2 사무, 6장)
-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밋 세바를 차지하다. (2 사무, 11장)
-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전투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살해되다. (2 사무, 18장)

기억할 구절

“신하들이 그에게 여쭙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2 사무 12, 21-22)

사무엘기 하권의 내용 요약:

- 사무엘기 하권은 다윗 왕의 통치를 다룬다.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훌륭한 임금이었다. 훌륭한 임금으로 알려진 왕은 몇 명 되지 않는다.
- 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을 뛰어난 전사이자 지도자,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며 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 일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 제 11장에서 24장까지에서, 다윗이 시험에 들고 시련에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테면, 그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하느님의 진노로 어린아이를 잃고, 장남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의 부하들이 전투에서 그를 죽이는 것 등이다.

열왕기 상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930~517 장수: 22

해당 기간: BC 975~ BC 850

대단히 중요한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옴. 마태오 복음서 17장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났다.

주요 사항

- 두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 서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을 내린다.
-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 엘리야가 거짓 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기억할 구절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1 열왕 2, 3)

“길앗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1 열왕 17, 1)

열왕기 상권의 내용 요약:

- 열왕기 상권에서는 사무엘기 상권에서 시작하여 하권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계속된다. 열왕기 상권은 다윗의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 솔로몬 왕의 죽음은 제 11장에 나온다.
- 제 12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은 백성이 원로들을 통해 명을 가볍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무겁게 하여 반역이 일어나게 했다. 왕국은 두 개로 분리되어 BC 586년에 바빌론의 침입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유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 18장에 나온다. 왕국이 분리된 후의 열왕기 상권의 내용은 대부분 왕들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다.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금들이 포함된다.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도 있었고 악독한 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악독했다.

열왕기 하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848~517 장수: 25

해당 기간: BC 850 ~ BC 575

엘리야가 산 채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요 사항

- 엘리야가 승천하다.
-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다.
-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준다.
-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함락되고 대대적인 유배가 시작되다

기억할 구절

“엘리야는 그 오십인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쉰 명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쉰 명을 삼켜 버렸다.” (2 열왕 1, 10)

“베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2 열왕 2, 3)

열왕기 하권의 내용 요약:

- 열왕기 하권은 열왕기 상권이 끝난 데서 부터 시작된다.
- 제 2장부터 제 7장까지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은 예언자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다. 제 13장에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온다.
- 이 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며, 훌륭한거나 악독하거나 간에 주목할 만한 여러 임금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한다. 이 책은 25장에서 바빌론이 유다를 침입하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

역대기 상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517~400 장수: 29

해당 기간: BC 4000 ~ BC 975

역대기 상권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전반부를 다룬다.

주요 사항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느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기억할 구절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베를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스물넷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1 역대 20, 5-7)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1 역대 22, 7-8)

역대기 상권의 내용 요약:

- 원래 역대기는 상, 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한 권이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책 한 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이 책에는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반복한 것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복음서들이 같은 이야기를 달리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골리앗 애기와 관련하여 더 많은 거인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이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더 자세히 추가되기도 했다.
- 이 책에는 족보와 율법이 포함된 수많은 목록이 나온다.
- 이 책은 제 29장으로 끝난다. 다윗은 다음에 임금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계획해 둔 성전의 건축을 당부하였다.

역대기 하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517~400 장수: 36

해당 기간: BC 975 ~ BC 525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역사가 포함된다.

주요 사항

- 솔로몬이 하느님께 장수와 권력과 재물을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하자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다.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바빌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성전을 다시 짓다.

기억할 구절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2 역대 1, 11-12)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2 역대 7, 14)

역대기 하권의 내용 요약:

- 역대기 하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서 제 8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된다.
- 제 9장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다.
- 역대기 하권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이 분리된 이후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이 책은 여러 왕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 화나게 했는지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유다의 왕 몇 명만 주님을 기쁘게 했다.)
- 마지막 장인 제 36장에서는, 70년 간의 유배생활에 관해 요약하고 또한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유다인들을 해방하여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칙령을 내리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에즈라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440~350 장수: 10

해당 기간: BC 550 ~ BC 510

하느님을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수백 명의 남자가 아내를 내보낸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은 유배가 끝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기간을 다룬다.

주요 사항

-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선포한다.
-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남자들이 아내를 내보냈다.

기억할 구절

“그리하여 유다와 벤야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에즈 1, 5)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좇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에즈 9, 12)

에즈라기의 내용 요약:

- 이 책은 유배가 끝나고, 솔로몬이 지었으나 나중에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관해 상세히 기록한다.
- 에즈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새 성전을 짓는 일이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이 일치하는 걸 보여준다. 이후에, 처음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 쌓기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난다.
- 에즈라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주님에게서 받은 열정과 능력으로 그는 백성을 영적으로 일깨웠다.
- 유배 이전부터 유다 남자들이 이민족 여자와 혼인하여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계속 그러는 걸 알고 에즈라는 뉘를 잃을 정도로 슬퍼했다. 남자들이 이민족 아내들을 내보내겠다고 했지만, 에즈라는 반대하지 않았다.
- 에즈라기의 끝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께 순종하게 된다.

느헤미야기

필자: 느헤미야 집필 시기: BC 440-350 장수: 13

해당 기간: BC 450~ BC 430

한 사람의 저자가 쓴 몇 안 되는 성경 책들 중 하나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룬다.

주요 사항

- 느헤미야가 빈부격차,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 느헤미야가 여러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여전히 교류하는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레위인들에게 줄 십일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을 시정하고, 안식일 준수가 해이해진 것을 바로잡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억할 구절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 1, 3)

느헤미야기의 내용 요약:

- 느헤미야기는 에즈라기의 계속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많다.
- 사제였던 에즈라와는 달리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는 페르샤 왕의 관리로서, 성벽을 복구하려는 열망을 갖고 유다인들 몇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그는 여러 악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들을 모시는 이민족과 혼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가 한 일 중 하나이다.
- 그는 엄청난 방해물을 물리치며 성벽을 복구하였다. 성벽 공사를 마친 이야기는 제 6장에 나온다.
-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다. 마지막 장인, 제 13장에서, 그는 사제들을 낮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토 빗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300~200 장수: 14

해당 기간: BC 722~ BC 700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오리엔트 정교회에서는 토빗기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취급하고 있다.

주요 사항

- 이 책은 토비야기로도 알려져 있다.
- 교훈적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 쓰인 일종의 역사 소설이다.
- 이 책에는 라파엘 천사가 등장한다.
- 이 책은 1940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에 사본 5부가 발견되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억할 구절

“애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토빗 4, 5-7)

토빗기의 내용 요약:

- 이 책은 토비야의 아버지 토빗이 니네베로 유배된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북부 왕국을 침입하여 백성들을 여러 다른 나라로 유배시켰다. 토빗은 눈이 멀게 된다. 토빗은 옛 친구에게 맡겨 둔 돈을 받아 오라고 아들을 메디아로 보냈다. 만약 그 친구를 찾아 돈을 받아낸다면 가족은 먹을 걸 살 돈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아들은 길잡이로 라파엘 천사를 발견했는데 그는 길잡이가 천사인 줄 모르고 단지 잘 생긴 친절하 니네 베 사람으로만 여겼다. 라파엘은 물고기를 잡아 내장 일부를 따로 보관하며 그것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헌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토비야는 라파엘 천사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친구의 딸 사라와 혼인하였다.
- 전반적으로 토빗기는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여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유 딿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50

장수: 16

해당 기간: BC 500년 경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오리엔트 정교회에서는 유딿기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취급하고 있다.

주요 사항

- 유딿은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유다 여인’이라는 의미이다.
- 토빗기처럼, 이 책도 뛰어난 상상력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구성된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할 구절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합니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유딿 8, 17)

유딿기의 내용 요약:

- 유딿기는 몇 가지 전쟁 역사로 시작되는데, 그것들은 꾸며낸 얘기거나 잘못 알려진 얘기일 것이다. 그 이야기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바빌론 왕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으로 나온다. 그는 많은 국가와 싸워 이겨,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했다.
- 예루살렘 주위의 유다인들은 아시리아 군을 두려워했다. 바빌론에서 70년 간의 유배에서 막 돌아온 그들은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단식하고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 암몬인의 수령인 아키오르가 유다인의 역사에 대해 아시리아 군에게 설명했다. 유다인들의 하느님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면, 그는 유다인들에게 죄과가 없다면 그들을 치지 말자고 제의했다. 군사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스라엘인들이 그를 죽일 거라 생각하여 그를 유다 진영으로 넘겼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를 칭송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 네부카드네자르 군이 물 공급을 끊어 유다 백성들이 길거리에 쓰러지자 과부 유딿이 나섰다. 그녀는 원로들에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자고 했다.
-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아름답게 치장한 후 홀로 아시리아 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적장 홀로페르네스는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여 만찬에 초대한다. 둘만 남겨지게 되자 지략을 발휘한 유딿은 그의 목을 자르고 탈출한다. 돌아온 유딿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다음 날 아시리아 군을 공격하여 승리한다. 이후 유딿은 그대로 과부로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

에스테르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460~150 장수: 10

해당 기간: BC 480 ~ BC 475

성경에서 하느님의 호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책.

주요 사항

에스테르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재상 하만의 사주로 임금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 하자 하만을 궁지로 몰아넣고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기억할 구절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에스 5, 8)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당도한 곳곳에서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대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에스 8, 17)

에스테르기의 내용 요약:

- 이 책의 이야기는 지금은 이ラク의 일부인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라는 곳에서 벌어진다.
- 제1장과 2장에서, 에스테르는 왕비가 된다. 모르도카이란 사람이 고아였던 에스테르를 입양했었다. 제4장에서는 모르도카이가 새 재상 하만이 왕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 에스테르는 남편인 왕에게 모르도카이의 암살 계획을 철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왕은 그 음모를 중단시킨다.
- 제7장에서, 악독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설치해 두었던 말뚝에 매달려서 죽게 된다.
- 마지막 장인 제10장에서, 모르도카이는 왕 다음가는 제2인자로 승진하여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마카베오기 상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00년 경 장수: 16

해당 기간: BC 175 ~ BC 134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

- ‘마카베오’라는 제목으로 모두 네 권의 책이 전해지는데 가톨릭에서는 앞의 두 권만 경전으로 인정한다.
- 마카베오기 상권은 특별히 마카베오 가문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어 독립된 작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마카베오기 하권은 상권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 속편도 아닌 것이다. 상권이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마카베오의 항쟁을 전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독립을 부각한다면 하권은 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을 부각시킨다.

기억할 구절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고 말하였다.” (1 마카 2, 33)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 있다.’” (1 마카 3, 17-19)

마카베오기 상권의 내용 요약:

- 마카베오기 상권 전반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BC 169)’이다.
- 서문은 알렉산드로스 장군의 행적을 전함으로써 앞으로 헬레니즘시대의 역사가 소개될 것을 암시한다.
- 3장에서 16장까지는 유다 마타티아스부터 시몬에 이르는 마카베오가의 항쟁이 자세히 다루어 진다.
- 마지막 부분에서 시몬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하나의 가문에서 하나의 왕조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하스모네아 왕조의 시작을 전하면서 마카베오가의 역사가 마무리된다.

마카베오기 하권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100년 경 장수: 15

해당 기간: BC 180 ~ BC 160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

마카베오기 하권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교리에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마카베오기 하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는 다음과 같다.

- 죽은이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희생제
- 순교의 유익
-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의 통공
- 죽은 자의 부활
- 고통에 대한 보상
- 무(無)에서의 창조

기억할 구절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2 마카 12, 44-45)

“이어서 위엄에 찬 백발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고 아주 장엄한 품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에 오니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족을 사랑하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로서,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2 마카 15, 13-14)

마카베오기 하권의 내용 요약:

- 이 책은 어떤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에 대해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6:18-7:42), 이는 중세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감동이 되었다. 그리스도 이전의 기독교인들을 성인으로 숭상하는 경우는 몇 되지 않는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전례력에서 모두 기념되고 있다. 이들은 중세시대에 기록된 순교 설화들의 첫 번째 모델로 인식된다.

- 카톨릭 변증가 지미 애킨(Jimmy)은 히브리서 11:35("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에서 볼 수 있는 고문 이후의 영생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의 원경전들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마카베오기 하권의 7장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욥 기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970 이후 장수: 42

해당 기간: BC 2100 ~ BC 1900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주요 사항

욥기는 ‘무죄한 이의 고통’ ‘고통 속에서의 인내’와 같은 주옥 같은 주제들로 주목을 받아 왔지만, 정작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성’에 있다. 욥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고통의 단련을 받았던 것이다.

기억할 구절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욥기 1,21)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 2, 9-10)

욥기의 내용 요약:

- 제1장은 욥이 주님에게서 받은 복에 대하여 얘기한다. 이어서 사탄에게서 시련을 받고 가진 것 모두를 잃는다는 내용이 제2장까지 계속된다.
- 제3장부터 37장까지에서, 욥은 방문한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까닭 없는 고난’이란 없으니 빨리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라고 충고한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세상과 하느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변한다.
- 제38장에서 41장까지에서,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신 하느님은 욥의 고통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연이은 수사학적인 물음들만을 나열하신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욥은 우주 전체와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그런 세상을 개인의 시각으로 판단해 온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마지막 장인 제42장에서, 주님은 욥의 운명을 되돌리시어, 욥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신다.

시 편

필자: 다윗 외 다수 집필 시기: BC 1400~450 장수: 150

해당 기간: 모든 시대

시편의 작가는 통상적으로 다윗으로 간주되어 왔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73개가 그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항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문자와 신학으로 규범화되는 과정과는 달리, 그들의 삶과 신앙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정서로 표현한 보편적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편은 대부분 유배 중에 집대성되었다. 따라서 조국과 자신의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존재론적 투쟁이, 남의 나라 땅에서 함께 부르던 그들만의 노래, 곧 시편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기억할 구절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시편 23, 4)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 3-5)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17, 1-2)

시편의 내용 요약:

제1장~41장 : 하느님의 호칭으로 ‘야훼’를 사용

제42장~72장 : 다양한 시인들이 등장한다. 코라의 자손들, 아삽, 다윗, 솔로몬 등.

제73장~89장 : 아삽과 관련된 열한 편의 시편, 코라 자손과 관련된 네 편의 시편이 포함된다.

제90장~106장 : 기원이 다양하고 공통점이 별로 없다.

잠 언

필자: 솔로몬 외 집필 시기: BC 970~500 장수: 31

해당 기간: 모든 시대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는 내용의 책

주요 사항

- 머리말에 나온 잠언서의 목적을 보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행동을 훈계하도록 하고,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알려 주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닫게 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서이다.

- 잠언의 큰 특징은 ‘삶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먼저’ 지혜를 주신다고 가르쳤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생각했다.(잠언 1,7)

기억할 구절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잠언 9, 10)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잠언 16, 18)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 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 내랴?” (잠언 18, 14)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잠언 26, 12)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잠언 31, 10)

잠언의 내용 요약:

- 잠언에는 다른 성경의 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나 신학적 가르침은 없다. 다만 모든 사람이 즐기고 사용할 지혜를 얘기할 따름이다.

-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을 비교시키면서 올바른 인생길을 알려주려는 가르침을 제시한다.

- 잠언은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하나는 부모, 스승 그리고 어르신과 같이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솔하게 말이나 무모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코 헬 렛

필자: 코헬렛

집필 시기: BC 970~225

장수: 12

해당 기간: 모든 시대

대부분 1인칭으로 서술했으며, 잠언처럼 짧은 구절로 진리를 설파한다.

주요 사항

- ‘코헬렛’이라는 말은 ‘회중(會衆)을 모으는 사람’이나 ‘설교자’를 뜻한다
- 이 책은 인간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탐구하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결론에 이른다.
- 코헬렛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최선의 방법은 하느님을 믿는 마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기억할 구절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코헬 1, 2)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코헬 1, 9)

“그러니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 이미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코헬 9, 7)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코헬 12,1)

코헬렛의 내용 요약:

- 전반부(1-6장)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구’를 말하고, 이어서 그런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생활의 지혜’(7-12장)가 소개된다. 전반부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후반부보다 두 배 이상 자주 언급되지만, 7장 이하에서는 이와 달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강조된다.
-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지혜야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7장).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 모두에게 통용되는 행복의 비결은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아 가

필자: 솔로몬

집필 시기: BC 970~723

장수: 8

해당 기간 : 모든 시대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노래

주요 사항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주석들은 아가가 노래 한 남녀 간의 사랑이 하느님과 교회, 주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 마리아와 성령의 관계로까지 해석하였다.

기억할 구절

사랑의 기쁨

(여자)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정녕 당신의 향유 내음은 싱그럽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 놓은 향유랍니다. 그러기에 젊은 여자들이 당
신을 사랑하지요. 나를 당신에게 끌어 주셔요, 우리
달려가요. 임금님이 나를 내전으로 데려다 주셨네.

(친구들) 우리는 당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
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리리다. 그들이 당신
을 사랑함은 당연하지요. (아가 1, 2-4)

아가의 내용 요약:

아가는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노래이다. 물론 그녀 이외에도 남자 주인공과 합창단이 등장하지만, 이들 중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이는 역시 여자 주인공이다. 중심인물답게 그녀는 첫 장면과 마지막에 등장하여 서두와 대미를 장식한다. 이야기의 갈등 구조는 여주인공인 그녀가 원하는 대로 쉽게 연인을 만날 수 없는 데서 발생한다. 사랑하는 연인을 마음에 품고 있기에 그는 그녀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접 만날 수 없기에 또한 언제나 부재한다. 사랑하는 이의 현존과 부재라는 갈등 상황과 그로 인한 간절함이 이야기의 역동적 주제로 작용한다.

지혜서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200~50

장수: 19

해당 기간 : BC 500년 경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

- 지혜서는 현재의 인간의 삶을 사후 세상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해하고 현재의 생활을 복되게 잘 살아서 사후에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 지혜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식과 지혜가 융성했던 시절인 솔로몬 시기의 지혜 문학이다.
- 지혜서의 지혜는 신의 속성을 의인화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혜는 ‘하느님이 내린 능력의 숨이며, 전능자에게서 흘러 나오는 영광이다.’라고 한다.

기억할 구절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지혜 1, 2)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번호를 받을 것이다.” (지혜 6, 10)

“당신께서는 자식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저들은 사람을 단죄하는 엄격한 임금처럼 철저히 조사하셨습니다.” (지혜 11, 10)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 가십니다.” (지혜 17, 11)

지혜서의 내용 요약:

지혜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고취. (운문 형식)

둘째,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 (운문과 산문 형식의 혼합)

셋째, ‘지혜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음을 증명하고 우상 숭배를 정죄 (운문과 산문 형식의 혼합)

1, 1~5, 23 : 의인들의 불멸성과 악인들의 징벌

6, 1~9, 18 : 지혜의 찬양

10, 1~12, 27 : 지혜에 의한 하느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원수들의 징벌

13, 1~15, 13 :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15, 14~19, 22 : 탈출기에서의 축복과 징벌

집회서

필자: 벤 시라 집필 시기: BC 200~175 장수: 51

해당 기간 : BC 200 ~ BC 180년 경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

- 집회서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충성이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이 경외심 안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찾자는 것이 벤 시라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다.
- 서문에서 이 책의 본래 저자는 ‘시라의 아들(벤 시라) 예수’이고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책을 번역하였음을 알린다.
- 집회서는 하나의 그리스어 본문과 여러 개의 히브리어 본문이 남아 있는데, 그중 몇 개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었다.

기억할 구절

-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집회 1, 14)
-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집회 1, 26)
-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어리석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집회 13, 8)
-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집회 42, 24)

집회서의 내용 요약:

집회서는 지혜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총 5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 지혜와 현명과 기타 금언(1, 1-16, 23)
- 제2부 : 하느님의 창조와 기타 금언(16, 24-23, 28)
- 제3부 : 지혜와 율법과 기타 금언(24, 1-32, 13)
- 제4부 : 하느님의 경외와 치세(32, 14-42, 14)
- 제5부 : 하느님의 영광(42, 15-50, 29)
- 부록(51, 1-30)

이사야서

필자: 이사야 예언자 집필 시기: BC 627~580 장수: 66

해당 기간 : BC 700 ~ AD 25

시편과 함께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주요 사항

신약에서는 백 개 이상의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요한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요한 12:41)를 인용하고 있다. 루카는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다가갈 때 그 내시가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사도 8, 28). 내시가 읽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8절이었다.

이사야서에 대한 신약의 인용구들은 열두 개의 장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일곱 개는 1-39장의 내용이며, 다섯 개는 40-66장에서 인용된 것이다.

기억할 구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 7, 14)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이사 40, 3)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사 53, 10)

이사야서의 내용 요약: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전반부(1~39장) 심판의 메시지와 후반부(40~66장) 위로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심판의 책(1~39장) : 전반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하느님과 의 관계 회복 이전에 꼭 다뤄야 할 문제이며, 죄의 문제에서 강조된 심판은 후반부의 용서와 회개가 강력하게 필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후반부 위로의 책(40~66장) : 후반부는 용서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 메시아로부터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의 대변혁과 창조질서의 회복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 날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하느님의 심판과 하느님의 회복시키심이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서

필자: 예레미야 예언자 집필 시기: BC 627~580 장수: 52

해당 기간 : BC 575 ~ AD 25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생활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 믿음과 군사외교적인 정책으로 살 길을 찾으려는 지도층의 자세를 비판한다.

주요 사항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어 들으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살 길임을 알려준다. 때로는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새 공동체를 이루시는 희망 찬 미래가 펼쳐진다고 알려준다.

기억할 구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예레 29, 11)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네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예레 33, 3)

예레미야서의 내용 요약:

서론적인 1장은 예레미야의 신상과 예언자로서의 부름과 그가 받은 지침 등을 묘사하고 있다.

2~45장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비유들과, 설교들, 상징적 행동을 통한 교훈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12편의 설교들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임박한 심판들의 원인을 열거하고 있다. 우상을 따름으로써 백성들은 그들의 공허한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계약)에 대한 불순종, 우상숭배,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등으로 인해 질책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나 극심했으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던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을 선포했다. 그의 메시지 때문에(2:25), 예레미야는 치욕과 반대를 겪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 아래서 누리게 될 회복과 소망을 확신시켜 주었다.

46~51장은 이방 아홉 개 국가들을 향한 일련의 예언적 경고들로 이루어졌다(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시리아), 아라비아, 엘람, 바빌론 등).

52장은 40년에 걸친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는 마침내 한 사건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파괴되었으며 약탈을 당했다.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포로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애 가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587~550 장수: 5

해당 기간 : BC 586 ~ BC 585

바빌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을 슬퍼하는
다섯 개의 조가(弔歌) 형식을 띠고 있다.

주요 사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 곧 유다 왕국이 멸망한 시기에 쓰인 책이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저자가 느끼는 심한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읊은 내용의 책이 애가이다. 팔레스티나에 남은 소수 유다인들의 애타고 슬픈 심정을 담고 있다.

기억할 구절

“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라려하는구나.” (애가 1, 4)

“맛있는 것만 먹던 아이들이 거리에 쓰러져 움직일 줄 모르고 자주색 옷에 싸여 업혀 다니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껴안고 있구나.” (애가 4, 5)

애가의 내용 요약:

‘애가(哀歌)’는 이름에 걸맞게 그 내용도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과 비참함으로 일관한다. 각 장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폐허로 변한 거룩한 도성 :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한 비참함을 묘사한다. 저자는 먼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슬피 바라본다.

제2장, 예루살렘 패망의 원인인 선민의 범죄 : 예루살렘의 참상과 거짓 예언자의 잘못된 예언에 대한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다.

제3장, 패망을 목도하는 만민의 교차 :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권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앞의 두 장과는 달리 공동체의 시련보다는 개인의 곤궁한 처지를 애절하게 노래한다.

제4장, 패망 당시의 회고와 참상 :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거짓 예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기술하며 위로와 하느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보다 크다고 고백하며 시온의 별은 이제 끝났다고 말한다.

제5장, 회복의 간구 : 비참한 유다 백성의 처지를 하느님께 탄원하고 회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다.

바룩서

필자: 바룩 집필 시기: BC 582~550 장수: 6

해당 기간 : BC 586 ~ BC 582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바룩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취급하고 있다.

주요 사항

주요 내용:

-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
-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예언
- 율법을 중심으로 단합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촉구

즉, 바룩서는 유배 간 백성에게 참회 예식을 거행하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담하여 포기하거나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기억할 구절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룩 2, 5)

“당신께서는 저희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새겨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유배살이를 하면서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저희 조상들의 모든 불의를 저희 마음에서 떨쳐 버렸습니다.” (바룩 3, 7)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께서 너희를 억압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시리라.” (바룩 4, 21)

바룩서의 내용 요약:

이 책은 4개의 기도, 지혜적 시, 예언적 담화, 풍자 등 서로 다른 문학 유형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문(1, 2-14)

- 바룩서 저자의 이름과 저작 연대가 나온다.

참회 기도(1, 15-3,8)

-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청하는 기도.

지혜에 관한 명상(3, 9-4,4)

- 율법과 동일시되는 지혜에 대한 찬송.
- 이스라엘의 희망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

예루살렘을 위한 격려와 위로(4, 5-5, 9)

- 백성의 탄원에 하느님께서 주신 응답

부록(6, 1-72) :

- 예레미야의 편지

에제키엘서

필자: 에제키엘 집필 시기: BC 600~550 장수: 48

해당 기간 : BC 586 ~ 앞으로 올 시대까지 예언

에제키엘이 여러번 체험한 신비로운 환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사항

에제키엘은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유다의 역사 중 가장 암흑기였던 70년의 바빌론 포로기 동안 사목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하느님께서 강하게 해 주신다’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대로 실의에 빠진 유배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기억할 구절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넷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에제 1, 16)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에제 33, 11)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간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에제 37, 4)

에제키엘서의 내용 요약:

에제키엘은 유다인이 우상 숭배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예언하며 실의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에제키엘서의 주요 내용

1~24장: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될 것이라 함. 이스라엘의 타

락으로 인한 하느님의 다양한 심판과 그 심판의 당위성을 말한다.

25-32장: 근처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

33장: 예언과 계시가 선포되어야 함의 당위성과 이스라엘 함락에 대한 설명.

34-39: 공동체의 회복을 알리는 희망적인 예언.

40-48장: 에제키엘이 환사에서 본 새로운 성전의 모습과 그 크기 그리고 미래의 새 이스라엘 땅의 분할과 규정 등에 대해 설명

다니엘서

필자: 불명 집필 시기: BC 540~164 장수: 14

해당 기간 : BC 536 ~ 앞으로 올 시대까지 예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불가마에 던져진 그의 세 친구 이야기가 유명하다

주요 사항

- 다니엘이 바빌론 왕궁 진출
- 다니엘이 네브카드네자르의 꿈과 그 뜻을 밝히다.
- 다니엘의 세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지다.
-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오다.
- 다니엘이 네 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다.
- 다니엘이 벨 신상을 부수다.
- 다니엘이 큰 뱀을 죽이다.
-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서 살아 나오다.

기억할 구절

“참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다니 2, 47)

“그때에 네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 12, 1)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부쳐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다니 12, 9-10)

다니엘서의 내용 요약: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다니엘서 1-4장의 내용은 네브카드네자르 치하를 배경으로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배 온 이들에 포함되어 있던 다니엘의 철저한 율법 준수와 하느님에 대한 성실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지혜가 강조된다.

5장에서는 벨사차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용기들로 술을 마시는 연회와, 이런 신성 모독의 죄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 준다. 그 죄의 결과는 임금

의 비참한 죽음과 바빌로니아 대제국의 멸망이었다. 6장은 메디아의 다리우스 치세를 배경으로 하면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시가 나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의 환시,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 예레미야의 70주간에 대한 예언,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환시, 당시 역사적 정황에 대한 환시적 설명, 마지막 때에 대한 환시 등이 소개된다.

호세아서

필자: 호세아 집필 시기: BC 755~725 장수: 14

해당 기간 : BC 750 ~ BC 6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는 아내 이스라엘을 남편이신 하느님이
어떤 사랑으로 살려 내시는지를 보여 주는 이야기

주요 사항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는 마치 남자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호세아 자신의 결혼을 통해 비유로 표현된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범죄, 성적인 범죄의 만연을 통해 상징된다.

광야에 내팽겨쳐진 이스라엘이 가혹한 형벌을 통해 정화되어 하느님에게 돌아오게 될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약속을 선언한다.

기억할 구절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네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 4, 6)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호세 11, 1-2)

호세아서의 내용 요약:

첫부분(1~3장)은 가족사를 다루는데, 호세아와 고메르의 결혼은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를 상징한다. 매춘이라는 죄로 아내는 고발되고, 예언자는 그녀가 매음 행위를 끝내고 진실된 화해를 하지 않는 한, 결과는 불행한 이혼밖에 없음을 선언한다. 하지만 이때 하느님은 새로운 변화를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을 신앙의 원체임 장소인 광야로 다시 데려가 새로이 맞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결국 아내를 고소하여 이혼 소송을 하려 했던 예언자는 그녀를 다시 받아 들인다.

후반부(4~14장)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징벌이 선언된다. 호세아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진실과 부정한 타협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현실이었다. 하느님은 백성을 회개시키고자 여러 방법으로 애를 쓰시지만, 모두 허사였다. 종교 의식의 거행이나 자선 등은 그저 의무를 다하기 위한 걸치레에 불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예언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요엘서

필자: 요엘 집필 시기: BC 900~400 장수: 4

해당 기간 : BC 725 ~ 앞으로 올 시대까지 예언

‘주님의 날’을 언급한 예언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주님(야훼)께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사항

주님의 날

요엘은 하느님 백성을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간 메뚜기 떼 재앙이 단지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건인 ‘주님의 날’을 상징한다고 본다.

성령의 임하심

하느님께서 주님의 날에 모든 이에게 당신의 영을 풍성히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을 전할 능력 또한 받게 된다.

기억할 구절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날이 가까웠다.” (요엘 2, 1)

“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요엘 2, 13)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요엘 3, 1)

요엘서의 내용 요약:

-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운한 현실을 묘사하고, 후반부(3~4장)에서는 하느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를 묵시문학적 문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요엘서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망연자실해 있는 백성에게 단식 기도와 참회의 제사를 올리라고 충고하고(1, 13-20; 2, 12-13), 그들이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일이라고 호소한다. 그럴 경우 다가오게 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언급한다(3~4장).

아모스서

필자: 아모스

집필 시기: BC 750

장수: 9

해당 기간 : BC 722 ~ BC 516

아모스는 사제나 예언자 가문 출신이 아니라 목양업자 출신의 예언자였다.

주요 사항

연대기적 기준에 따르면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문서 예언자이다. 따라서 아모스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기 시작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서의 신학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아모스 이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아모스서가 예언서로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보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모스 예언자가 동시대인들에게 그만큼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정도로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피력했음을 의미한다.

기억할 구절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 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의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모 4, 10)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아모 4, 12)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아모 9, 11)

아모스서의 내용 요약:

아모스서는 인접한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과 고발이 제시되는데, 이는 다섯 가지 환시를 중심으로 한 신탁을 통해 다시금 강조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 아모스서의 어조는 대부분 어둡고 비관적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복구, 재건에 대한 약속은 당신 백성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징벌은 하느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사랑하는 자식의 회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아버지의 회초리인 것이다.

오바드야서

필자: 오바드야 집필 시기: BC 850~582 장수: 1

해당 기간 : BC 700 ~ BC 575

오바드야의 신탁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주요 사항

오바드야라는 이름은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이름 외에 오바드야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신탁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유다 출신이며 유배 중에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한 인물이다.

오바드야서는 스물한 개의 절로만 이루어진, 신탁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다. 그런데도 1~14절, 15~21절 사이에 문체나 주제상의 균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예언자의 고유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문학 유형이 연합되어 완성된 작품이라고 간주한다.

기억할 구절

“네가 바위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네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오바 1, 3-4)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 산으로 올라와 에사우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오바 1, 21)

오바드야서의 내용 요약:

오바드야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1~14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후반부(15~2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약속된다. 즉, 유배지에서 절망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던 백성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슬러 일어섰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당신의 왕국으로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한다.

요 나 서

필자: 요나 집필 시기: BC 800~700 장수: 4

해당 기간 : BC 775

요나가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다.

주요 사항

고대 이스라엘 안에는 선민 의식에서 비롯된 배타적 국수주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배를 통해 이민족과의 공존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들만을 구원의 축으로 주장하는 선민 의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즈라와 느헤미아의 개혁을 통해 이민족과의 완전한 분리를 강요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작품도 있었으니 요나서가 그 중 하나였다. 요나서는 동시대인들보다 앞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이민족들을 향해서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기억할 구절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나 2, 10)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 3, 8-10)

요나서의 내용 요약:

요나서는 크게 세 장면으로 진행된다.

첫째 장면은, 요나가 니네베로 가라는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요나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배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흘을 보낸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소명을 확인한다.

둘째 장면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네베로 간 요나의 활약이 소개된다. 요나의 선포에 니네베 사람들은 임금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식하며 죄를 뉘우친다.

셋째 장면은, 하느님은 책벌하시려고 하다가도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킨다. 요나는 진노를 거두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오히려 불만스럽게 여기지만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당신의 보편적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미 카 서

필자: 미카 집필 시기: BC 750~686 장수: 7

해당 기간 : BC 722 ~ 앞으로 올 시대까지 예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오리라고 예언

주요 사항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레셋 사람인 미카는 시골 출신답게 농부와 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귀족층을 고발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그다지 길지 않은 책이지만 미카서는 복음서에 여러 번 인용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책이다. 미카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세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5, 1).

기억할 구절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카 5, 1)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 8)

미카서의 내용 요약:

첫 부분(1~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언급한다. 이 부분은 사회적 부정을 고발한다.

두 번째 부분(4~5장)에서 예언자는 메시아 왕국의 설립과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하여 언급한다.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고한다. 이 예언은 다윗 가문에서 한 지도자가 나와 위대한 영도자가 된다는 것으로, 그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 하느님 이름의 위엄으로써 백성의 평화와 안녕을 이루리라고 강조한다.

세 번째 부분(6, 1~7, 7)은 배은과 죄악의 결과로 벌

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주님의 요구를 분명히 전하면서 백성을 고발한다.

네 번째 부분(7, 8~20)은 참회와 구원의 약속으로, 죄악을 깨끗이 씻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은 찬미가 형식을 통해, 하느님께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고백한다.

나훔서

필자: 나훔 집필 시기: BC 663~612 장수: 3

해당 기간 : BC 658 ~ 615

니네베에 대한 심판을 묘사

주요 사항

나훔이라는 이름은 나훔야의 줄임말로 주님께 서 위로하시다. 혹은 주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진다. 이름에서 암시되듯이, 나훔서는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니네베의 종말을 생생히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억할 구절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나훔 1, 7)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 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나훔 2, 3)

나훔서의 내용 요약: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전한다. 하느님은 힘없는 이들의 피난처이시므로 인간은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니네베의 최후에 대한 위협적 선고가 예고되는 동시에 유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된다. 이 단락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고, 해방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니네베의 멸망이 음울한 애가로 읊어진다. 곧,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중국에는 새로 변하여 흔적도 없이 몰락할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낸다.

하바쿿서

필자: 하바쿿 집필 시기: BC 612~597 장수: 3

해당 기간 : BC 608 ~ 598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의 예언서

주요 사항

하바쿿 예언자에 대한 정보는 다니엘서에 잠시 등장할 뿐, 그밖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 구절도 본래적 자료라기 보다는 하바쿿서가 이미 대중에게 유포된 가운데, 이 책이 가지는 전통적 가치를 후대 저자가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바쿿서가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 없다.

기억할 구절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하바 1, 2)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하바 2, 4)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바 3, 18)

하바쿿서의 내용 요약:

모두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하바쿿서는, 예언자의 항변과 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2장에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제기된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룬다. 3장에서는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데, 구원을 호소하는 아름다운 기도 형식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한다. 아름다운 기도와 찬미가로 이루어진 3장의 시편은 1~2장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에 울분을 터뜨리던 예언자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찬미가를 드린다.

스바니아서

필자: 스바니아 집필 시기: BC 640~609 장수: 3

해당 기간 : BC 605 ~ 앞으로 올 시대까지 예언

국가의 멸망을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고

주요 사항

1장 1절에 제시된 스바니아의 족보에서, 그는 왕가의 혈통으로 언급되는데, 이러한 출신 성분은 왕족이나 기득권자들의 죄악을 서슴없이 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억할 구절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가까울뿐더러 득달 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쓰라리니 용사조차 비명을 지르리라.” (스바 1, 14)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스바 2, 3)

“그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당신의 공정을 펴신다. 동틀 녘마다 어김없이 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스바 3, 5)

스바니아서의 내용 요약:

스바니아서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종말론적 사건을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고한다.

첫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시작된다. 스바니아는 주님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한 신탁을 전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신탁은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의 모든 이교 민족들에게 내리는 경고가 된다. 특히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오만에 대하여 그 위풍당당함이 이제 까마귀와 맹수들만 우글대는 사막의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예언자는 또다시 반역하는 도시 예루살렘과 만백성이 받을 재난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교 민족에게 내리는 심판 선언은 당신 백성의 비행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러난다. 마지막 부분은 스바니아 예언자 사후에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구원 약속이 된다.

하까이서

필자: 하카이 집필 시기: BC 520~515 장수: 2

해당 기간 : BC 526

하카이는 예언자들 중 자신의 활동 시기를 가장 명확히 밝힌 예언자이다.

주요 사항

하까이라는 이름은 ‘나의 축제’라는 의미이며,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전례 의식과 성전이라는 주제에 집중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작과 쇄신을 강조하면서 성전 재건 열광주의로 귀환 공동체의 유대인들을 인도한다.

기억할 구절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 버렸다. 무슨 까닭이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하까 1, 9)

“주님의 사자 하카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하까 1, 13)

하까이서의 내용 요약:

두 장에 불과한 하까이서는 대다수의 예언서와는 달리 ‘산문체’로 되어 있다. 전체 구성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책의 제목을 제외하고 전체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1, 2~15)에서는 도시의 폐허를 보고도 아직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한다. 이어 둘째 부분(2, 1~9)에서는 새로 지어질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덜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전의 성전을 압도할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셋째 부분(2, 10~19)에서는 사제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행위때문에 예배마저 부정해졌음을 경고한다. 넷째 부분(2, 20~23)에서는 하느님께서 다윗 왕조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확인하고자 유다 왕족 즈루빠벨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심을 전한다.

즈카르야서

필자: 즈카르야 집필 시기: BC 520~400 장수: 14

해당 기간 : BC 520 ~ 앞으로 올 시대까지 다름

즈카르야서의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기보다
환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주요 사항

이사야서처럼 즈카르야서 역시 한 예언자의 정통성을 잇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연합된 책이다. 따라서 첫 작품을 ‘제1즈카르야서’ 혹은 ‘원 즈카르야서’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2즈카르야서’라고 부른다.

기억할 구절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즈카 9, 9)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만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즈카 12, 10)

즈카르야서의 내용 요약:

제1즈카르야서(1~8장)

즈카르야서는 과거 조상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회개 촉구와 여덟 개의 환시를 통해서 전달되며, 여기에 즈루빠벨의 대관식과 예언 신탁 모음집이 첨가된다.

제2즈카르야서(9~14장)

제2즈카르야서는 메시아 시대를 다루는 일종의 신탁 모음집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주님의 말씀인 신탁’이라는 표제로 시작된다. 전반부에서는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한 희망을,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재건을 묘사한다.

말라키서

필자: 말라키 집필 시기: BC 480~430 장수: 3

해당 기간 : BC 424 ~ AD 24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

주요 사항

말라키서는 예언서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 말라키서는 예언적 담화문의 형식을 빌려 예언서 전체를 마무리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백성들이 이를 반박한 후 거기에 대한 예언자의 변론이 나오는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경전에서 이 말라키서를 구약 성경의 끝에 배치한 것은 나의 사자(使者)라고 불리는 이 예언자와 예수님의 활동 이전에 활약한 신약적 인물 세례자 요한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편집적 의도를 반영한다.

기억할 구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말라 3, 1)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 3, 10)

말라키서의 내용 요약:

말라키서는 논쟁 형식의 소단위 신탁 모음집과 편집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예언적 담화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백성들이 반박한 후 거기에 대한 예언자의 변론이 나오는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형식의 소단위 신탁 모음집은 3장 21절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편집 후기(부록, 3, 22~24)가 제시된다. 후기 부분에서는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3,22)고 하며 오경을 기억하는데, 이는 결국 예언서 전체를 오경과 이어주는 편집적 연결 기능을 한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마태오 복음서 [28]-----	52
마르코 복음서 [16]-----	53
루카 복음서 [24]-----	54
요한 복음서 [21]-----	55
사도행전 [28]-----	56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	57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	5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3]-----	59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	60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	61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	62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	63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	64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	65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	66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	67
티토에게 보낸 서간 [3]-----	68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	69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3]-----	70
야고보 서간 [5]-----	71
베드로의 첫째 서간 [5]-----	72
베드로의 둘째 서간 [3]-----	73
요한의 첫째 서간 [5]-----	74
요한의 둘째 서간 [1]-----	75
요한의 셋째 서간 [1]-----	76
유다 서간 [1]-----	77
요한 묵시록 [22]-----	78

마태오 복음서

필자: 마태오 집필 시기: AD 100 이전 장수: 28

해당 기간 : BC 4 ~ AD 30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책

주요 사항

-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 수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
- 비교적 방대한 양인 것으로 미루어, 짧은 시간 안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모아 장시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 마태오 복음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 예수님의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억할 구절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 7,3)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 7, 1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19-20)

마태오 복음서의 내용 요약: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짜임새 있게 전한다. 이 복음서는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된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1,1-16, 20)

당시 유다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고대하고 있었다. 마태오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과 전통에 얽매어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는 대제관이나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질타하고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을 하느님의 뜻으로 완성시킨 율법의 참 해석자이시다.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그분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16, 21-28, 20)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하셨다.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일차적으로 하늘나라가 다가왔음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 속에서 박해받는 이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북돋우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유다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셨다.

마르코 복음서

필자: 마르코

집필 시기: AD 50~67

장수: 16

해당 기간 : AD 26 ~ AD 30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짧은 복음서

주요 사항

마르코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서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래아에서 전도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을 소개한다.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인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서는 로마 신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고난에 처했거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기억할 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 34)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 45)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르 16, 15)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 요약:

마르코 복음서에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 이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본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사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주는 질문이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8, 29)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런데 메시아 비밀은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

◇“누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마땅히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수난 및 부활 예고를 하셨다. 그 예고 뒤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조건이 함께 제시된다.

루카 복음서

필자: 루카

집필 시기: AD 60~80

장수: 24

해당 기간 : BC 3 ~ AD 30

마리아의 노래(마니피캣)가 포함된 복음서

주요 사항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로서 네 복음서 중 가장 분량이 많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부유하지 않고, 소외된 이들이 많았다. 죄인들도 포함된다. 루카는 이 책을 보통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여겼기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넣었다. 십자가 상의 강도와 예수님과 대화의 통화를 통해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기억할 구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 18-19)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겂옷을 나누어 가졌다.” (루카 23, 34)

루카 복음서의 내용 요약:

루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루카는 중간중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라는 표현을 삽입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고, 수난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근처 베다니아에서 승천하셨으며, 성령이 임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창립되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계시하시는 빛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만민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음

을 강조한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루카 복음서에는 잃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에서의 첫 설교서부터 당신이 가난한 이, 포로, 소경, 억눌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선언하신다.

◇기도하며 깨어 지켜라.

루카 복음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 삶의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권고하셨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우셨다.

요한 복음서

필자: 요한

집필 시기: AD 90

장수: 21

해당 기간 : AD 26 ~ AD 30

“나는.....이다”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옴.

주요 사항

4복음서 중 유일하게 공관 복음서에서 제외된다. 공관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데 비해, 요한 복음서는 신학적인 체계에 따라 쓰였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썼는데 이 표현으로 초대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억할 구절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 16)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 31-32)

요한 복음서의 내용 요약:

◇말씀의 새로운 창조

머리말에서는 창세기의 첫 마디를 그대로 사용하여 ‘맨 처음’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생명은 모든 이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고 한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빛을 증거하는 이로 소개하면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를 받아들이는 이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한다. 머리말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라는 맥락에서 ‘표징의 책’을 시작하고 있다.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

을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이 파견하신 분,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밝힌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과 부활의 시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사제 간의 애틋한 이별을 전해 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 역시 부활로 이어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힌다.

사도행전

필자: 루카

집필 시기: AD 60~80

장수: 28

해당 기간 : AD 30 ~ AD 50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통한 초대 교회의 발전을 기록

주요 사항

루카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초대 교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교적인 요소가 신자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었기에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는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즉 진실을 알리고, 복음이 무엇이며,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던 초대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기억할 구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 8)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 4, 12)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9, 5)

사도행전의 내용 요약:

루카 복음서에 이어 지리적인 흐름에 따라 교회의 길을 전해 준다.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후반부에서는 바오로가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성령으로 탄생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 (1, 1~5, 42)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으로 삼으셨음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도록 촉구한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확장되어 가는 교회 (6, 1~12, 25)

교회 안팎에서 시련을 당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교회가 커지면서 유대계와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기도와 봉사에 전념하기로 하고 일곱 보조자를 뽑아 신자들을 돌보게 했다. 그중 한 사람인 스테파노는 하느님을 거역해 온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 순교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의 선교여행 (13, 1~ 28, 31)

바오로를 중심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된다. 여러 차례 시련을 맞지만, 세 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운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7~58 장수: 16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선포한 서간

주요 사항

이 서간은 기독교 교리를 조직적으로 기록한 중요한 서간이며 신약 성경 중 가장 폭넓게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신학적인 이해를 넓혀주고 있다.

바오로는 이 서간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며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

바오로는 인간은 율법에 따른 행위보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고 강조한다. 이 서간은 그리스도 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훈과 조언이 더해진다.

기억할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로마 3, 22)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켰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 9)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다.’

이것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하느님 안에만 머무르면 의미가 없다. 인간의 의로움과 연관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복음은 인간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는 길이다.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만 되면 사람은 의롭게 된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왜 의롭지 못하나.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의로운 하느님은 인간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그

리스도)이 우리에게 왔다. 복음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느님처럼 우리도 의롭게 한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의롭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을 원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면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하느님의 의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 바로 자비와 용서다. 하느님은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느님의 용서는 인간적 차원(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을 넘어선 하느님 차원의 용서다. 무한대의 차원, 초월적 차원의 용서다. (정영식 신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5~56 장수: 16

유명한 사랑의 송가가 포함(13장)된 책

주요 사항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 에페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작성한 서신이다.

이 서간은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교회의 일치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는 성령, 혼인에 관한 문제, 성체 성사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13장 ‘사랑’편이 유명하다.

기억할 구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1코린 10, 31)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1코린 13, 4)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코린 15, 12)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요약: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는 분쟁과 윤리적인 폐단, 결혼, 공동체 예배시 지켜야 할 자세, 부활 신앙 등 코린토의 교인들이 부딪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다. 이 서간은 다섯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1, 1~4, 21)

코린토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는 결코 갈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같은 정신과 같은 사상으로 일치할 것을 호소한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5, 1~6, 20)

신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근친 상간의 음행과 교만에 대하여 꾸짖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7, 1~11, 1)

결혼은 죄가 아니니 서로 자유롭게 결혼을 택할 수 있지만, 결혼을 했건 독신이건, 현재 상태에 충실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11, 2~14, 40)
만찬시에 드러나는 분열과 욕심을 지적하면서 성찬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주고 있다.

◇부활 복음의 핵심(15, 1~16, 24)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만에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5~56 장수: 13

초대 교회의 선교 상황과 바오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담고 있는 책

주요 사항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초대 교회의 선교 상황과 바오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장 명백하게 전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13, 13)

이 책은 실제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인데, 이들 중 두 권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행실에 관해 세 번이나 나쁜 소식을 듣고나서 마침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하느님 왕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오른 그들을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기억할 구절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 수 있겠습니까?” (2코린 6,14)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2코린 9, 6)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코린 13, 13)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내용 요약: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는 사도 바오로를 거부했다가 회개하고 화해하는 등 코린토 교회의 구원과 모든 교회의 일치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열정이 흘러 넘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 뿐 (1, 7~7, 16)

코린토 교회가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동안 자신이 받은 오해에 대해 변호하면서 사도직에 관한 소신을 피력한다. 사도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은혜로운 선행을 완수하십시오.(8, 1~9, 15)

코린토 교회와 화해하는 기쁨을 전한 바로로는 이제 지난 번 디도를 통해 청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완결하도록 권고한다.

◇내가 찾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재물이 아닙니다.(10, 1~13, 13)

이 부분은 앞의 1~9장보다 먼저 쓰여져 코린토 교회에 보내진 ‘눈물의 편지’의 일부로 여겨지며, 시종 흥분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오로를 보게 된다. 그는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똑바로 보라면서 반대자들과 코린토교회의 교우들을 꾸짖고 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3~54 장수: 6

초대교회의 갈등과 분열상을 그대로 전해 주는 중요한 책

주요 사항

유다계와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갈등과 분열상을 그대로 전해 주는 중요한 책이며,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마다 믿음에 의한 구원과 성령에 의한 자유로운 삶을 되새기는데 늘 인용되어 온 책이다. 믿음에 의한 의화를 논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로마서, 코린도 1, 2서와 함께 4대 서간 성서로 꼽히며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강조했기에 “그리스도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린다.

기억할 구절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라 1, 6-7)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 갑시다.” (갈라 5, 22~25)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갈라티아서는 바오로 사도가 54년 경 쓴 편지다.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여행 중인 시점이다.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이웃사랑이다.

조금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예수는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 27; 마르 12, 29~31; 마태 22, 34~40 참조)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믿어라”라고 말한다(갈라 2장 참조). 왜 그럴까.

바오로 사도는 제 3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티아 신자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분열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분열은 지금 여기서도 늘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본당에는 레지오마리아파가 있고, 꾸르실료파가 있고, ME파가 있고, 성령기도회파가 있다. 이런 저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신자들도 “난 본당신부파”, “난 수녀님파”한다.

이 모든 문제는 왜 생길까. 바로 하느님 사랑은 둘째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영식 신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0 장수: 6

교회의 기원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강조하는 책이다.

주요 사항

교회의 기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강조하므로 교회 일치를 꿈꾸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침서이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에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와 함께 수인(囚人) 서간이라 불린다. 아울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기억할 구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페 2, 10)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에페 6, 12)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에페 6, 14)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에페소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1,1-3,21)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근원이요 중심임을 일깨우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 계획의 신비를 드러내셨는데, 이 신비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되었음을 밝히고 또한 역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희망을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임을 일깨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요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힘있게 전한다.

◇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 평화의 복음을(4,1-6,24)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하나님도, 주님도, 희망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도록 일러주며 또한 헛된 정신과 우상숭배, 빈말 등이 난무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기(믿음과 선행,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로 무장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한다. 어둠을 폭로하고, 세계의 어두운 지배자와 싸워 이기도록 힘을 복돋을 뿐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1 장수: 4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 책

주요 사항

이 책은 바오로의 옥중 서간의 하나로 내용과 집필 상황을 보면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및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연결된다.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있어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운다. 초대 교회 전례 때 사용한 '그리스도 찬가'가 실려 있는 아름다운 편지이다. 이 찬가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극치를 보여준다.

기억할 구절

그리스도 찬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필리 2, 6-11)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필리피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겸손, 일치와 기쁨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다.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눈다.

◇ 갇힌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해진다면(1,1-26)

사도 바오로는 먼저 그리운 필리피 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늘 동참해 준 필리피 교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1,27-3,1)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

음을 일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한다.

◇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3,2-4,9)

그리스도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 한편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일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4,10-23)

필리피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축복을 빌면서 편지를 끝 맺고 있다. 바오로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준 필리피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1 장수: 4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일깨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항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는 책으로서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콜로새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자 이 편지를 썼다. 당시 물자와 문화의 교류가 잦았던 콜로새와 그 주변 도시에는 그릇된 신앙이 퍼져가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에 뒤섞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천사를 숭배하며, 지나친 금욕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저자는 그릇된 가르침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힘있게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기억할 구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콜로 1, 16)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콜로 3, 12)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콜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신비가 장엄하게 펼쳐지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새로운 삶이 힘있게 제시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신비(1,1-2,3)

바오로는 콜로새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기쁨을 전하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빌면서 인사하고 있다. 이어서 아름답고 뜻깊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 하느님의 신비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특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신비를 찬양한다.

◇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가르침들(2,4-3,4)

콜로새로 밀려오는 그릇된 가르침들의 실상을 폭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일깨워 굳센 믿음을 지키도록 촉구한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가르침, 율법과 규정에 얽아매는 가르침, 육적인 허영심만을 만족시키는 금욕생활, 천사를 숭배하는 일 등은 모두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일임을 밝힌다.

◇ 묵은 사람, 새 사람(3,5-4,8)

묵은 사람의 생활양식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을 열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행을 권고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도록 힘주어 말한다. 특히 모든 덕행의 으뜸이자 완덕에 이르는 길로써 사랑을 제시한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1 장수: 5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주요 사항

사도 바오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 바오로는 필리피에 교회를 세우고 추방당한 뒤 테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또 쫓겨난다.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거나 앓을까 걱정이 되어 직접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기에 디모테오를 보냈다. 그후 바오로는 디모테오로부터 테살로니카 교인들이 시련을 잘 견디고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 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격려와 희망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기억할 구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1테살 4, 14)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씩시다.” (1테살 5, 8)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 16~18)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요약:

이 책에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믿는 이로서 지녀야 할 자세 등이 담겨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바오로와 테살로니카 교회(1,1-3,13)

바오로는 새로 탄생한 테살로니카 교회가 모든 곤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전한다.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의 활동과 그들에 대한 사랑, 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테살로니카 교인들의 신앙 등을 이야기 한다.

◇ 주님과 더불어(4,1-5,11)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인가

지 생각하면서 주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라고 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이들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한다.

◇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믿는 이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른다. 또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51~52 장수: 3

예수님 재림에 대한 바오로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

신약성서로는 테살로니카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바오로의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어 초창기 교회의 신앙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1세기 교회에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분위기가 컸었다. 테살로니카 교회에도 박해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가르침에 이끌려 아무 의미 없이 살아 가는 이들이 있었다. 바오로는 이런 테살로니카 교인들의 생각과 생활 자세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편지를 썼다.

기억할 구절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2테살 1, 10)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테살 2, 14)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내용 요약:

테살로니카 후서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지녀야 할 자세, 무질서하고 게으른 생활을 바로잡도록 일깨우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은(1,1-12)

갖가지 박해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인내와 신앙을 간직하며 생활하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2,1-3,5)

주님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생각하고 흔들리며 당황해 하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 선함과 근면으로(3,6-18)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자세를 깨우쳐 주고 있다. 아울러 사도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형제처럼 타이르라고 권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편지를 끝 맺고 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2~64 장수: 6

사람들을 이끌고 성장시켜야 할 사목자들의 자세를 세심하게 다루는 책

주요 사항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및 둘째 서간은 교회의 제도와 조직, 사목지침을 담고 있어 티토에게 보낸 서간과 함께 사목서간이라 불리운다.

초기 교회 당시 이단이 성행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시기였다. 저자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에 맞서, 바오로가 전해 준 그리스도교 사상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일러주고 있다. (2 티모로 계속)

기억할 구절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1티모 2, 12)

“나는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선입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 편견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1티모 5, 21)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티모 6, 10)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요약:

바오로는 교회의 직제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성장시켜야 할 사목자들의 자세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 모든 이를 위해(1티모 1,1-3, 13)

바오로는 사람들이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티모테오를 에페소에 머물게 했음을 밝히면서, 사목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어떤 이들이 감독자와 봉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1티모 3,14-

4,5)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일러주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결혼과 음식을 금하는 이단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다.

◇ 권고하며 가르치시오(1티모 4,6-6,20)

성경 낭독과 권면과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은사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신도들을 연령층에 맞게 권면하고 과부들을 보살피며 원로들을 존경하라고 이른다. 모든 악의 뿌리인 돈에 대해 욕심내지 말고, 영생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훌륭한 싸움을 하도록 촉구한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7~68 장수: 4

바오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옴.

주요 사항

(1 티모에서 계속)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조물은 모두 좋아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되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권면하라고 하면서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라고 촉구한다.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기억할 구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2 티모 1, 7)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2 티모 2, 15)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내용 요약:

바오로는 교회의 직제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성장시켜야 될 사목자들의 자세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 하느님의 힘으로 함께 고난을(2티모 1,1-18)

바오로는 기도 중에 늘 티모테오를 기억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하느님의 은사를 더욱 키워 나가도록 권유한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나누자고 하면서 아시아 교회의 상황을 들려 주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2티모 2,1-4,8)

자신에게서 들은 바를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라고 촉구하면서, 비록 자신은 간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결박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을 보인다.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에 대항하는 이단이 기세를 떨쳐 서로 속고 속이겠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힌 티모테오는 성경에서 구원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어느 기회에 서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곳곳이 선포하라고 이른다.

◇ 빨리 내게로 오도록(2티모 4,9-22)

루카 외의 다른 이들이 모두 자기 곁을 떠났으니 마르코와 함께 자기 외투와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다. 첫 번째 변론 때에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굳세게 해주셨다고 밝히면서 문안 인사를 나눈다.

티토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7~68

장수: 3

교회 사목자의 자질과 의무, 그 협조자와 신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사항

바오로는 이 서간에서 사목자는 사람들을 건전한 가르침으로 격려하고 훈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목 협조자들도 가르침에 의거한 건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또한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 시비, 다툼이나 율법 쟁론은 무익하고 부질없는 것이므로 피하라고 권고한다.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실로써 모범을 보이면 적대자들의 비난도 받지 않을뿐더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억할 구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티토 2, 14)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티토 3, 5)

티토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내용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1,1-4)

바오로는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복돋우기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바탕을 두어야 경건함에 걸맞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 건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1,5-16)

티토를 크레타섬에 남겨 둔 이유는 뒷정리도 있지만 각 도시마다 원로들을 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원로와 감독자는 흠 잡힐 데 없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에 의거한 건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2,1-3,11)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 젊은 남녀와 노예들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해 나가기를 권유한다.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두루 빛낼 수 있게 되는데, 이렇듯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힘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나온다고 한다.

◇ 선행에 앞장설 줄 알아야(3,12-15)

니코폴리스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므로 서둘러 오라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필자: 사도 바오로

집필 시기: AD 61

장수: 1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노예도 자유인도 한 형제임을 일깨우고자 한 서간

주요 사항

13개의 바오로 서간 중 마지막 책이다. 지역교회나 사목자들에게 보낸 다른 서간과는 달리 필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바오로는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보호하고 싶어 주인인 필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필레몬과 오네시모는 모두 바오로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 오네시모는 비록 죄를 지은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서 너그럽게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다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듯이 노예와 자유인도 따로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모두 한 형제임을 일깨우고자 했다.

기억할 구절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필레 1, 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필레 1, 16)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필레몬서는 바오로가 쓴 편지 중 가장 짧다. 도망친 노예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바오로의 노력이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필레몬을 기억하며(1,1-7)

다른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레몬과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성도들에 대한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전해 듣고 하느님께 감사 드리면서 믿음에 동참한 필레몬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전한다. 바오로는 필레몬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면서 필레몬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성도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원한다.

◇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1,8-25)

필레몬에게 그의 노예였으나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당부하고 있다. 오네시모는 바오로를 만나 신자가 되었고, 지금은 교회와 바오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이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은 빛을 자신이 갚겠다며 오네시모에 관한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곡히 청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필자: 불명

집필 시기: AD 70 년 이전

장수: 13

성경 중 유일하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사제'라고 밝힌 특별한 책이다.

주요 사항

성경 중 유일하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사제'라고 밝힌 특별한 책이다. 히브리서의 독자(혹은 청중)들은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불안해 하며 배교의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 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되새기고,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자 했다.

기억할 구절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 2, 17)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 11, 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 12, 1)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 요약: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관(1,1-4,13)

신자들이 희망을 두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우고, 처음의 태도를 끝까지 굳게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상속자이시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든 이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자 죽음을 맛보신 분으로 하느님 앞에서 대제관이 되셨으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성실하며 자비로우신 대제관이시라고 했다

◇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사(4,14-10,31)

옛 계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새 계약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의 대제관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써 단 한 번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다

◇ 시련 속의 인내(10,32-13,25)

구원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산 의인들을 상기시키면서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극복하도록 북돋우고 있다. 약속해 주신 바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견책은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라고 한다.

야고보 서간

필자: 야고보

집필 시기: AD 60년 경

장수: 5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교훈서

주요 사항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교훈서이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하면 진실을 거스르는 말과 논쟁, 시샘과 교만 등 세속적인 욕심으로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선행은 필요없다며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신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일러주려 했다

기억할 구절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 1, 5)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 2, 14)

야고보 서간의 내용 요약:

야고보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말의 중요함, 믿음과 행함의 관계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일러주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1,1-2,26)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면서 시련에 싸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하라고 한다. 또한 가난하다고 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심은 고아와 과부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찾아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 하나님을 가까이(3,1-4,12)

하나의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는 혀는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을 저주하기도 한다면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말에 실수를 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심판하지도 말라고 한다.

◇ 서로를 위하여(4,13-5,20)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부자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다. 또 기쁠 때에는 찬미의 노래를, 앓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를 받으라고 한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필자: 사도 베드로

집필 시기: AD 60~68

장수: 5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희망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제시되고 있다.

주요 사항

특정교회에 보내진 다른 서간과는 달리 전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당시 교회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I · II · III서, 유다서간과 함께 '공동서간', 또는 '가톨릭 서간'이라 불린다.

전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용기를 불어 넣기 위해 쓰여졌다.

기억할 구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 베드 1,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1 베드 5, 8)

베드로의 첫째 서간의 내용 요약:

베드로 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희망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제시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1,1-2,10)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쁨과 희망에 찬 삶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생한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고난의 길을 가신 분,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모퉁이 돌이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머릿돌이 되신 분으로 다가올 영

광을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2,11-5,15)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우고 있다. 현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가정에 충실하고, 참 신앙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한마음으로 사랑하도록 권면한다. 특히 정의와 진리,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은 행복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일러준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써 곧 올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른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

필자: 사도 베드로 집필 시기: AD 65~68 장수: 3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주요 사항

주님의 재림을 비웃는 이단자들로 인해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고 주님의 계명을 다시 기억할 것을 일깨우고자 쓰여졌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을 일삼으며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주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를 저지르는 이단자들에게 내릴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들의 그릇된 주장에 속지 말 것을 권고한다.

기억할 구절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2 베드 1, 4)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2 베드 3, 10)

베드로의 둘째 서간의 내용 요약: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단자들의 유혹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점과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1,1-2)
인식과 자제, 인내와 경건, 형제애와 사랑의 미덕을 실천하는 등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선택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내림을 확신하고 희망하면서 어두운 데를 밝혀 주는 등불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라고 한다.

◇ 진리와 길을 모독하는 자들에게(2,1-22)
탐욕과 욕정으로 열새 없이 죄를 찾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진리

의 길을 모독하는 이단자들은 심판받게 된다고 한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이들은 시련에서 건져내시지만 더러운 욕정으로 욕을 쫓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행을 당할 거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결코 이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일깨우고 있다.

◇ 그분 앞에 티없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되기를(3,1-18)
주님의 내림이 오지 않는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며 주님은 모든 이의 회개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알려 주신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오므로 티없고 흠없는 자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한의 첫째 서간

필자: 요한 집필 시기: AD 70~100 장수: 5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의 서간이다.

주요 사항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의 서간이다. 요한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반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나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많은 신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됨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일러주기 위해 이 편지를 띄웠다.

기억할 구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 8~9)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 7~8)

요한의 첫째 서간의 내용 요약:

요한 1서에서는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 등이 빛과 어둠, 죄와 생명, 미움과 사랑 등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하나님은 빛이시니(1,1-2,29)

하느님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을 거닌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온갖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진다고 한다.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일러주면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되라고 한다.

◇ 하느님의 자녀들(3,1-4,6)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고백하지 않는 반 그리스

도의 영은 죽음과 죄에 속한 거짓 영임을 일러주면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믿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사랑의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일깨우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서 말과 혀가 아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시니(4,7-5,21)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요한의 둘째 서간

필자: 요한 집필 시기: AD 70~100 장수: 1

성경에서 여성에게 보낸 유일한 서간

주요 사항

요한 1서와 함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공동서간'이다. 당시 요한계 교회에는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며 신자들을 유혹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어느 지역 교회에서는 원로가 써 보낸 서간을 무시하고 원로가 파견한 순회 전도자(선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원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육화를 고백하지 않는 '속이는 자', '반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요한 2서를 띄웠다. (요한 3서로 계속)

기억할 구절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요한 1, 6)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2요한 1, 7)

요한의 둘째 서간의 내용 요약: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13절, 15절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이다.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랑과 선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자세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머무시오(2요한 1-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한의 셋째 서간

필자: 요한 집필 시기: AD 70~100 장수: 1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주요 사항

(요한 2서에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위해 파견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형제들마저 교회에서 쫓아낸 행동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전도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는 진리의 협력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자 요한 3서를 보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간직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단자들의 그릇된 사상에 동조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우고자 했다.

기억할 구절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3 요한 1,4)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뵈지 못한 사람입니다.” (3 요한 1, 11)

요한의 셋째 서간의 내용 요약: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13절, 15절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이다.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랑과 선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자세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선을 본받으시오(3요한 1-15절)

원로가 보낸 순회 전도자(선교자)들을 극진히 대접한 교우 가이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디오드레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길을 떠난 전도자들의 협력자가 되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임을 일깨우면서 악을 본받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다 서간

필자: 유다 집필 시기: AD 65~80 장수: 1

이단자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됨.

주요 사항

특정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I·II·III서와 함께 '공동서간'이라 불리운다. 집필 당시에는 그릇된 가르침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단자(거짓교사)들이 교회공동체 내에 들어와 자유분방한 생활로 분열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이단자들의 실상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도록 복돋우고, 소중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도들이 이단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믿음에 충실하도록 일깨우고자 했다.

기억할 구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유다 1, 4)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유다 1, 9)

유다 서간의 내용 요약:

유다서는 '반 이단적 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단자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단자들에 대항하여(1-16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의 생활상을 신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영을 지니게 되었다고 자처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영을 지니지 못한 이들, 하느님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자들로, 하느님의 은총을 빙자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들며, 불평만 하고 허풍떨며 아첨하고 분열을 일삼으며, 거룩한 만찬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욕정만을 채우

는 이들이라고 밝힌다'

◇ 믿음의 기초 위에 서로를 건설하는 길(17-25절)

이단자들은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믿음을 건설하는 사람임을 일깨우고 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혼란을 예고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권고한다. 때론 이단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끝맺는다.

요한 묵시록

필자: 요한 집필 시기: AD 68~100 장수: 22

환시(幻視)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짐승과 숫자, 신비스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

주요 사항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배교하거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도 많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은 최대의 시련기에, 요한은 하느님께서 보여준 환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어린 양,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루신 분임을 일깨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고통과 시련을 넘어서는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러니, 이 묵시록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환시를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역사 속의 하느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기억할 구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 3, 20)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묵시 21, 1)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묵시 22, 20-21)

요한 묵시록의 내용 요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묵시1,1)를 전달하기 위해 그 환시의 묘사로 많은 상징을 사용한다. 인간의 언어로 초월적 현실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자는 비유적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자기가 본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설명한다.

요한 묵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 신앙심을 잃을 위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즉, 고통받는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된 책이다.

복음서 말씀처럼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그것이 언제 올지 그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요한 묵시록이 종말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충실히 살고 있다면, 비록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